

사천왕상(아스카 시대 국보)

한 그루의 녹나무로 조각된 이 상은 7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현존하는 사천왕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방향에 서서 부처의 세계를 수호하는데 지국천은 동쪽, 증장천은 남쪽, 광목천은 서쪽, 다문천은 북쪽을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다문천은 비사문천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중 하나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호류지 절을 창건한 쇼토쿠 태자(574~622년)가 일본에 불교가 보급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천왕에게 기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